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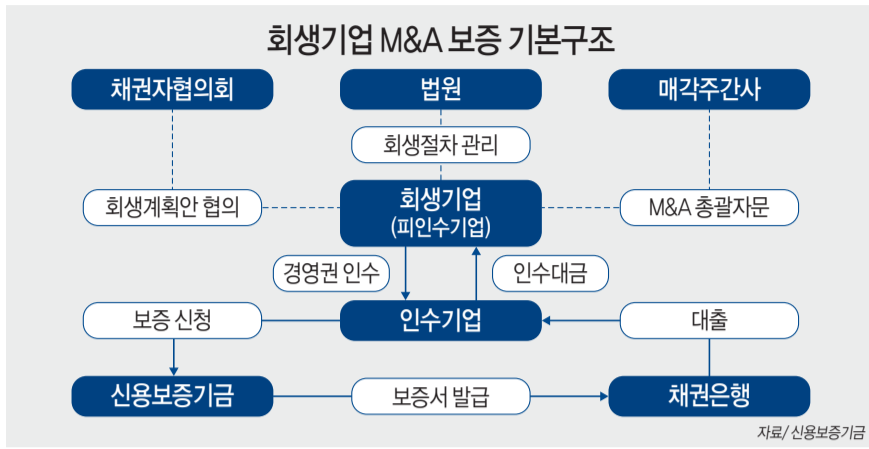
신보, M&A 인수자금도 보증

회생기업 인수추진시 32억 지원
기업 구조조정·경영정상화 견인
인수·회생기업, 채권자 '윈윈'

건설업을 영위하던 A사는 영업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A사와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B사는 영업망 확대를 위해 A사 인수를 추진했으나 인수자금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A사의 매각주관사로부터 신보의 회생기업 M&A 보증을 소개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결국 회생절차 내 M&A를 통해 A사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은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게 됐으며, B사는 영업망을 확충할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견인을 위해 회생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2개 기업에 총 32억원의 '회생기업 M&A보증'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



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지난해 9월 도입한 보증 상품이다.

이번에 신보가 지원한 기업은 영업망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사업 진출을 위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생기업을 인수해 인수합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인수되는 회생기업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채권자들도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시에 변제받을 수 있어 인수기업, 회생기업, 채권자 모두의 윈윈(Win-win)이 기대된다.

한편 신보는 회생기업 M&A보증 수요를 발굴하고 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요자금의 50% 이내'였던 보증한도를 신용등급에 따라 '소요자금의 60%~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회생기업 M&A 보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앞으로도 회생 중인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생보사 약관대출 금리 ↓... 600억 이자 절감

보험계약대출 금리 최대 0.6%p 인하
금리변동위험, 가산금리서 제외키로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의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최대 0.6%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대출이용자들은 연간 약 6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가산금리 산정요소 조정을 통해 최소 0.31%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까지 인하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데 대한 대가로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 확정형 계약 대출이 6.74%, 금리 연동형 계약 대출이 4.30%에 달한다.

이중 가산금리는 금리 확정형 계약이 2.03%, 금리 연동형 계약이 1.50%다. 보험사에 따라 대형사는 8.34%, 중소형사는 6.29%, 외국사는 6.77%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 변동위험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요소가운데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 변동위험을 없애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급여력(RBC) 비율 산출 시 보험계약대출을 금리 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회계적 비용으로 측정되지 않아 산정근거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해서도 투자 기회 상실비용 추정 시 대기성 자금 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 총 47조원 가운데 금리 확정형 계약 대출은 18조 3000억원, 금리 연동형 계약 대출은 28조 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연간 이자 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김희주 기자

마이데이터 신청 116개사 중 절반 '금융사'

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 수요조사 IT·CB·통신사 등 비금융사 뒤이어
8월 5일부터 사업 분허가 절차 진행

<마이데이터 사업 수요조사>

/금융위

핀테크	금융회사(55개사)						비금융회사(41개사)		
	은행	여전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IT 등	CB사	통신사
20	12	10	17	11	4	1	36	3	2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마이데이터 사업 수요조사에 총 116개 회사가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마이데이터 허가사전 수요조사에 총 116개 회사가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에서 금융회사는 55개사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다. IT·CB사·통신사 등 비금융회사가 41개사(35.3%)였고 핀테크 기업이 20개사(17.2%)로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조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며, 수요조사서를 공란으로 제출한 기업들은 기한 내 예비 컨설팅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분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30일 마이데이터의 방향과 출시 예상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해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허가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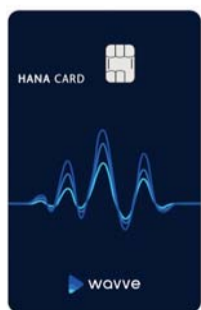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신한PIB센터에서 삼정KPM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을 마치고 신한은행 왕미화 부행장(왼쪽)과 삼정KPMG 구성희 재무자문 부문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하나카드 사용하고 웨이브 구독료 아끼세요” 새마을금고

2020년 상반기 직원 공채

실적 40만원 이상시 핀크머니 환급
커피전문점서 5% 청구할인 혜택



하나카드는 핀테크 전문 기업 핀크(Finnq)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문 기업인 콘텐츠웨이브와 함께 웨이브 구독료를 현금 출금 가능한 핀크머니로 돌려주는 '웨이브(wavve)카드(사진)'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3900원의 웨이브 구독료를 핀크머니로 돌려준다.

웨이브 카드로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이용 시 7900원(베이직 상품), 80만원 이상 이용 시 1만3900원(프리미엄 상품)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핀크머니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 시 스타벅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등에서 결제 시 5% 청구할인(월 5000원 한도)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SK텔레콤의 주요 요금제를 통해 웨이브를 무료로 구독 중인 고객도 전월 실적 충족 시 무료 구독 중인 웨이브 구독료를 핀크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웨이브 카드는 핀크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가입·신청할 수 있다. 거래내역과 적립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전용·국내외 겸용 모두 2만5000원이다. /박미경 수습기자 mikyung96@

새마을금고가 2020년도 상반기 직원 공채 채용을 실시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새마을금고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입직원 채용규모는 전국 228개 새마을금고에 총 237명이다.

채용은 서류전형, 온라인 필기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채용은 인공지능(AI)기반 온라인 필기전형을 도입한다. 개인별로 지정된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결된 PC, 웹캠, 마이크헤드셋이 필요하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다. /나유리 기자

신한銀-삼정KPMG 전문적 법인컨설팅 제공 '맞손'

신한PWM PIB센터, 기업가 자산관리 삼정KPMG, 다수 고객네트워크 보유 차별화된 자문업무, 자산관리 제공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신한PIB센터에서 기업가 고객 대상 법인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삼정KPM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업가 고객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국내 은행권 최초로 PB(Private Banking)와 IB(Investment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모델인 신한PWM PIB센터를 신설해 기업가를 중심으로 자산관

리와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PWM은 국내 자산관리 1등 사업자로 다년간의 자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수준의 PB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정KPMG 또한 다양한 투자금융(IB)업무를 주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가 등 자산가 고객의 법인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화된 자문 업무를 제공해 신한PWM만의 서비스 차별화 및 고객중심 자산관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